



- 부활 제5주일 - 2019년 5월 19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799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jb.ucatholic.or.kr

7지구 - 대화동 성당



설립 1997년 10월 12일 전화 사무실 031-922-2122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성저로 58

제1독서 사도 14,21~27

화답송 시편 145(144),8-9,10-11,12-13ㄱ~ㄴ(◎1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 하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려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제2독서 묵시 21,1-5ㄴ

복음 환호송 요한 13,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요한 13,31-33ㄱ,34-35

영성체송 요한 15,1,5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



최종복 베드로줄리앙 신부
해외유학

사제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 한 편이 얼마전 인 기리에 방영을 마쳤습니다. 극 중에서 이 주인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제들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강력한 극중 장치가 하나 있으니, 바로 '로만 칼라'입니다. 드라마 제작진은 이 작은 표식 하나로 그의 신분을 시청 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 로만 칼라가 달린 클러지 셔츠는 가톨릭 교회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가톨릭 성직자들이 착용하기에, 그것을 입은 이들을 가톨릭 성직자라고 인식하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 내의 대부분의 수도회들은 고유한 수도복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수도회들과 자신의 회를 구분하고, 같은 수도회라면 세상 어디서든 자신들의 회원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직자, 수도자를 넘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표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주반지일까요? 아니면 성호경일까요? 그

것들도 매우 직관적인 표식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며 하느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표식은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가르침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표식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로만칼라나 수도복, 목주 반지나 스카폴라도 사랑하는 행위 앞에서는 그저 이차적인 표식에 불과합니다. 훗날 하느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당신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는 것은 다른 어떤 표식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 생전 베풀었던 '사랑의 실천들'일 것입니다.

내외부적 이유로 생애 필요한 조건들이 험사리 채워지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이 지니는 가치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겠지요.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들을 마음껏 세상에 드러내는 한 주가 되 시기를 빕니다. ☺



꺼져버린 사랑



성년을 맞이한 거미가 있었다.
 잎새를 스치는 바람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저녁이면 잠자리가 끈적해지는 기분하며
 간혹 한 부분에 가래뿔이 서는 듯
 뻗뻗해지는 증세가 자주 나타나곤 했다.
 그물코에 걸리는 날파리 등의 먹이보다도
 더 간절히 기다려지는 그.
 물을 마셔도 가셔지지 않는 갈증.
 달빛 한 움큼만 새어 들어와도
 혹시나 하고 밖을 내다보게 만드는 조바심.
 ‘그는 어디에 있을까, 만나 보고 싶어라,
 이 마음 전하고 싶어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나타났다.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을 때 그가 거기에 있었다.
 처마 밑의 그물에 달려 있는
 아름다운 방울.
 방울은 거미한테 들켜 버린
 속살이 부끄러워서인지
 빛살을 되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살마저도 무지개 가닥이어서 거미의 가슴을 더
 울렁거리게 만들었다. 거미는 조심조심 몸을 떨며 다가갔다.
 “너를 사랑해. 정말, 정말이야. 자, 손을 이리 쬐, 부탁이야.”
 방울은 몸을 움츠리며 대꾸했다.
 “천천히 가. 맹목적인 질주보다는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더 중요해. 햇볕 아래서 갑자기 말리는 도자기보다 그늘
 과 햇볕으로 천천히 말리는 도자기가 더 튼튼하대.”
 거미는 은근히, 그리고 간절히 말했다.
 “내가 지금 터뜨리지 않아도 누군가가 터뜨릴 텐데 뭘.”

“아니야. 네가 보호해 주면 누군가도 보호해 주게 돼. 네가 곧
 누군가인 거야.”

거미는 열이 받았다.
 “나도 그런 것쯤은 알아. 그러나 참을 수가 없는 걸 어떡해?”
 “사랑은 참을 수 있는 거야. 그것이 곧 사랑의 가장 참다운 증
 거인 거야. 만일 능금나무에 꽃이 피었을 때 그 꽃을 꺾어 가
 진다면 능금은 영영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야.”
 거미는 애원했다.
 “잠깐만.”
 “관계에 있어선 잠깐만도 다인 거야.”
 “그럼 연습처럼 슬쩍만.”
 “이것은 연습이 없어. 슬쩍도 상처는 마한가지야.”

거미는 방울을 억박질렀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를 허락할 수도 있어야 해.
 사랑은 아낌없이 줄 때 아름다운 거야.”
 그러자 방울이 울먹이면서 말했다.
 “이제 나는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함께 보호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도적의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어?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야.”
 그러나 거미는 솟구치는 불길을 잡지 못했다.
 기어코 방울을 향하여 덤벼들고 말았다.



순,
 간,

그다음은 아무것도 없음이었다.
 찬란하던 방울이 사라져 버린 빈자리에 바람만이 허허하게
 흐르고 있을 뿐.
 아.....

그림 _ 구민정 엘리사벳

의정부교구



약혼자 주말

20
19



혼인식은 하루,

혼인생활은 평생

*A wedding is a Day,
A marriage is a Lifetime*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대상: 예비 부부 및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17차 5/24 (금) 20시 ~ 26 (주일) 17시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18차 10/18 (금) 20시 ~ 20 (주일) 17시

(접수중, 선착순 8쌍)

- 장소: 위로의 성모 수녀원(성북동)
- 문의: 가정사목부 031-850-1448
<http://cafe.naver.com/ujbee>



천주교의정부교구 가정사목부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

에제키엘

—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기원후 2세기) 이후로,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오 복음사가를 사람에, 광야의 외침으로 시작하는 마르코를 사자에,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사제 즈카르야의 이야기에서 루카 복음사가를 황소에, 로고스찬가로 서두를 여는 요한복음은 높은 곳을 나는 독수리에 비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에 대한 언급은 에제키엘서의 시작에 등장하는 ‘주님의 발현에 대한 환시’(1,4-28; 10,1-22)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에제 1,1(유배 5년)과 33,21(유배 12년)의 날짜들은 에제키엘(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 예언자가 기원전 593년부터 587년 사이에, 또한 29,17(유배 27년)은 최소한 그가 571년까지 활동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다왕국이 멸망하던 시기에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디 사제였습니다(에제 1,3). 그런데 바빌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고 임금과 유력인사들을 포로로 끌고 가던 597년의 1차 유배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같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족의 땅에서 사제라는 자신의 본분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된 이를 주님은 부르셔서 ‘당신의 영을 넣어 주시고’(2,2)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2,3),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게 하십니다(2,8-3,3). 그렇게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2,1-2)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3,16; 33,7)으로 파견하십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표현 중의 하나가 ‘본다’(1,4.15.27; 2,9; 8,2.7.10; 10,1.9; 40,4; 41,8; 44,4)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환시’라는 소제목으로 소개되는 장면들에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전하는, 곧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1장의 ‘주님의 현현(顯現 Theophania)’, 2장의 ‘두루마리’, 10장의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37장의 ‘이스라엘의 부활 환시’, 40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시’와 ‘주님의 영광의 귀환에 대한 환시’, 47장의 유명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에 대한 환시’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시’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보게 됩니다.

한편, 그도 다른 예언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47구절)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주님의 손이 나에게 (무겁게) 내리셨다.’(1,3; 2,9; 3,14.22; 8,1; 33,22; 37,1; 40,1)는 독특한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제키엘의 독특함은 단지 언어적 표현만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일주일간 눕을 잃기도 하고(3,15), 병어리가 되기도 합니다(3,22-27). 스스로를 가두기도 하고(4,1-8),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5,1-4). 공포에 떨며 음식을 먹는가 하면(12,17-20), ‘눈의 즐거움’(24,16)이라 불리던 자신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는데 상을 치르는 이로 살지도 않습니다(24,15-27). 그는 자신의 행동, 곧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참담한 사건(기원전 587년)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질투'(5,13; 8,3,5; 16,38.42; 23,25; 35,11; 36,5,6; 18,19)를 불러일으키는 '혐오스런 것'(5,11; 7,20; 8,10; 11,18.21; 20,7,8.30.43; 36,3; 37,23)에 빠진 행위, 곧 우상숭배(6장, 8장, 11장, 13-17장, 22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36,24.26.27 7.28; 참조 11,17-21)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앞서 말한 환시들, 곧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환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통일, 마곡의 임금 곡과의 전투와 승리, 마침내 새로운 성전과 생명의 물에 대한 환시를 통해 예언합니다.

장, 23장)가 임금과 예언자들, 수령들과 백성들 사이까지, 그것이 단지 일상의 자리만이 아니라 성전에서까지(8장) 벌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오자(33,21) 그는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양 떼를 이제 악한 목자들(34,2-9)에게 맡기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돌보겠다는 선언입니다(34,10-16). 그리고 당신께서 그들을 위해 '유일한 목자'(34,23)를 세워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일을 맡기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선언, '착한 목자'(요한 10,1-18)와 연결됩니다. 에제키엘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제키엘이 전하는 또 다른 희망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계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 너희는

에제키엘이 남긴 말씀은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남겼는데,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 묵시록을 비롯한 '묵시문학(apocalypsis)'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에제 8,2와 묵시 1,13; 에제 1,10; 10,14와 묵시 4,7을 비교해보십시오).

에제키엘은 앞선 예언자들의 전통, 특히 동시대에 활동한 예레미야 예언자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색다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유배자들 가운데에서(1,1)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민족의 노예가 된 이들,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진 이들, 그들 가운데에 그가 예언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주님의 징벌을 받는 중이라 생각하는 이들 그들 가운데에서, 예언자와 유배자들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곧 그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현존하신다는, 주님께서 버려진 것 같은 이들과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

선교사목국 성서사목부 담당

괴테가 이탈리아로 간 까닭은

음악 이야기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대신학교

화창한 봄날을 즐기며 조금씩 여름이 다가 오는 것을 느낍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도 깨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봄에는 가까운 곳에 봄꽃구경이나 나들이 한번쯤 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름이 다가오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제대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동경이 찾아옵니다. 막상 여행할 여건이 될 때는 드물지만, 그래도 머리 속에 그려 보는 것이야 남이 뭐랄 수 없는 나의 자유이지요. 근사한 여행기들은 이런 여행을 향한 갈망을 달래주고, 떠나고 싶은 막연한 그리움이 병이 되는 대신에 삶에 자리에서의 정신적 성장을 위한 양분으로 변화시킵니다.

실제 멀리 여행을 떠나볼 수 있다면야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먼 길을 떠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빼어난 여행기를 읽는 것은 그러기에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고, 요즘처럼 우리의 오감과 내면의 감각이 약동할 때는 더더욱 권할 만합니다. 그의 작품을 읽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름은 익히 들어보았을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749-1832)의 <이탈리아 여행>(안인희 옮김, 지식향연, 2016)은 자주 언급되는 여행기의 고전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독서계에서도 이 책의 지명도가 많이 높아진 것을 느끼게 되고 꽤 많은 분들이 한번쯤 이 책을 읽어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꽤 두꺼운 책이어서 막상 손에 들게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괴테의 다른 대작들과는 달리 일기와 편지 형식이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읽어나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의외로 재미있어 오늘의 독자들에게도 고전을 독파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 독서의 맛을 느끼게 할 만한 책입니다. 책에 나오는 수많은 지명이나, 건축물, 예술작품들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면서 다채로운 시청각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접할 수 있으니, 이 책의 시대적 공간적 장벽도 꽤 낮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을 설레는 유럽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또는 그 좋았던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 아니면 대리체험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교양과 도야를 위한 귀한 동반자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괴테는 왜 이탈리아로 떠나야 했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물으며 이 책을 읽으면 흥미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독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른 후반의 나이에, 이미 수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한 이가 훌쩍 이탈리아로 떠난 까닭은 무엇인지, 책을 통해 답을 찾다 보니 어느덧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더군요.

괴테가 <이탈리아 기행>에서 가장 심중에 둔 도시는 로마이지만, 로마에 가기 전에 체류한 베니스 역시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티치아노와 베로네세 같은 화가들의 걸작을 베니스에서 만나며 그는 화가들이 투명하고 밝게 사물을 보며 명료함을 획득하는 것에 감명받습니다. 이는 조화에 대한 괴테의 갈망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니스에 가장 어울리는 작곡가는 역시 바로크 시대의 거장 안토니오 비발디입니다. 12곡으로 구성된 그의 협주곡집 <조화의 영감 L'Estro Armonico>을 들으면, 괴테가 추구했던 명료하면서도 살아있는 조화의 세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중 인기가 높은 열 번째 협주곡을 일 지르디노 아르모니코(II Girdino Armonico)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

YOUTUBE로 보기



안토니오 비발디<조화의 영감 L'Estro Armonico>중 열 번째 협주곡 연주: 일 지르디노 아르모니코 II Girdino Armonico



**교구장
동 정**

5월	19(주일)	11시	행주성당 본당설립 110주년 기념미사
	21(화)	19시	2019 한반도평화나눔포럼 화해미사 - 명동대성당
	22(수)	10시	사제부모님 피정 - 참회와 속죄의 성당
	23(목)	20시	사목방문 - 광적 성당
	25(토)	11시	'1본당1난민가정돌봄사업' 자원활동가 양성교육 수료미사 - 교구청 경당



**교구
소식**

제8차 의정부교구 '선택주말'(CHOICE) 안내

일시 6/28(금) 19:30~6/30(일) 18시 (2박3일) 장소 한마음수련원 피정의 집
 대상 20세~39세 미혼 젊은이 (선착순 40명) 접수 4/21(일) ~ 6/9(일)
 문의 청소년사목국 청년부 031-850-1460, <https://cafe.naver.com/youthujb> 공문 참조

성소후원회 미사

7,8지구 일시 5/22(수) 10시 장소 금촌 성당
 5,6지구 일시 5/24(금) 10시 장소 풍동 성당

제6기 한국교회사 강학회 수강생 모집

한국 교회의 시작인 천진암 강학회를 기억하며, 한국 교회사 강의 및 그룹 토의
 일시 6/29(토)~6/30(주일) 양일간 10시~17시 장소 신앙교육원 /수강비 7만 원
 접수 5/24(주일), 선착순 40명 마감 문의 031-850-149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019년 상반기 본당 사회사목분과 연수

일시 5/26(일), 13시~17:30 대상 본당 사회사목분과장 및 위원(반체시오회 회원 가능)
 장소 신앙교육원 마감 5/22(수)까지(연수비 1만 원)
 문의 사회사목국 031-850-1472 참조 4/18(목)에 게시된 교구 공문(사회19-128) 참조

주교님과 함께 하는 풍년기원미사

일시 6/1(토) 10시(미사 준비, 봉헌금, 간편 복장) 장소 파주박달산뿔밭(광탄성당 옆)
 내용 자연농법으로 손 내내기 문의 환경농촌사목위원회 031-850-1492

의정부교구 제8기 민족화해학교 심화과정 연수 안내

대상 민족화해학교 1단계 수료자 일시 6/1(토) 10:30~2(일) 17시
 장소 민족화해센터(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111) 인원 및 연수비 선착순 100명, 5만 원(1인)
 문의 031-941-6235~6 종강미사 및 수료식 6/2(일) 16시 /민족화해센터 대강당

직장경찰사목위원회 계약직 직원 모집

업무 회계, 운전 등 위원회 제반 업무 대상 만 43세 이상의 교우 1명(세례 받은 지 5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분증 추천서 마감 6/9까지 police@uca.or.kr 접수, 031-850-1477

■ 하느님의 집 후원 현황(4월말 기준)

전월 잔액					862,907,973원
4월후원	사제와 개인	본당 입금	기타(미사예물 외)	교구 부서	합계
	17,470,000원	147,683,589원	38,360,000원	5,000,000원	208,513,589원
월말 누적 잔액					1,071,421,562원



미사 · 피정 ▶▶

교구 성령새신 봉사회 철야기도회(미사와 함께)

일시: 매주(금) 21:30~02시 마두동 성당 (5/24) /강사: 김연준 프란치스코 신부(피아골 피정의 집) /주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한티 성지의 달빛 잔치와 수도원순례

일자: 7/13~7/14(한티성지 피정의 집)

문의: 010-3712-8119 정 야고보

예수회센터 영신수련 8일 피정(9박10일) 안내

일시: 7/5(금) 19시~7/14(일)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중독자 및 가족대상 회복피정 안내

일시: 6/8(토)~9(일)

장소: 씨든영성센터(서울시 성북구 소재)

대상: 중독문제로 고통받는 본인과 가족(신청 15명) /치료진: 정신과전문의, 성직자, 중독치료사, 회복자 /비용: 1인 3만 원

신청: 5/24(금)까지 사전전화접수

접수: 02-364-1811~2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일시: 5/29~31,

6/10~12, 6/14~16, 6/19~22, 6/25~28, 7/5~7

예수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하느님의 약속은 2번 /김병로 신부

일시: 5/20(월) 13:30~16:30

장소: 마두동성당 4층 소성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4)

문의: 010-5054-4470/무료, 미사봉헌

예수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루카11,1)III /김용수 신부

일시/장소: 5/24(금) 10시~15:10 /예수회

센터 /무료, 미사봉헌

문의: 02-3276-7777(예수회 후원회)

성경통독 성체신심 치유피정

내용: 영육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피정 /일시: 5/10(금)~13(월), 6/6

(목)~9(일), 7/26(금)~29(월)

피정지도: 토마스 신부(본원)

장소: 도미니코수도원

피정비: 36만 원(3박4일기준,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신 글라라)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아래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예약가능) 기간: 5/31~6/2, 6/10~13(추자도), 6/16~19(추자도), 6/22~24, 7/1~3, 7/6~8 접수: 02-773-1463/064-756-6009

예수의성모 관상수도회 영성미사 및 영성강의

영성미사, 미사및강의: 문호영신부

일시,장소: 매월 4째주(토) 5/25, 13시(고해

성사) 14시(미사및성시간/명동가톨릭회관

7층/가톨릭신자)

문의: 032-933-7237,4825

가정회복 은혜의 낮피정(고해성사,상당)

일시: 5/20(월) 13시~16:30(말씀,찬양)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회관(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치유 세미나

일시: 6/22 (토) 11시~6/23(일) 16시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내용: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과 안수 /회비: 5만 원

문의: 010-5490-5345



교육 · 모집 ▶▶

교하성당 교중미사 반주자 모집

문의: 이 모니카 010-9228-0644

법원리 성당 반주자 모집

신부님 추천서1부, 교적1부

문의: 031-958-0811(마감 5/26)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활동 참가 가족/단체 모집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운영기시 6~7

월) 한마음가족캠핑(1박2일), 한마음오리

엔터테인먼트 교실(1일) 주말학교 야외체험 활동

(운영기시 3~11월) 캠핑야영, 오리엔티어링

(보물찾기), 쉼터지코스/집라인 체험

문의: 031-840-0742(홈페이지 참조)

가톨릭대 문화영성대학원 신입생 모집

문화영성학 석사학위과정 (5학기) 학위와 별

도로 가톨릭영성전문가과정 이수증 수여

소재: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모집기간: 5/6(월)~5/24(금)

면접일: 5/31(금) /문의: 02-2258-7814

교과영역: 성경과 영성, 영성사와 신학, 전례

와 예술, 문화의 이해, 상담과 치유 등

http://gcs.catholic.ac.kr

6차 순교자학교

주제: 순교자와 어머니

일정: 6/15(토)~16(주일). 시작14시. 마침

16시 /장소: 정하상교육회관

문의: 044-863-5690~2, 010-8848-5690

비용: 8만 원

cpbc소년소녀합창단 2019 하반기 신입단원 모집

대상: 초3~초6 첫영성체 받은(2019 예정인)

가톨릭 신자 /오디션: 6/1(토) 13시, 가톨릭

평화방송 B1 합창단실

접수: 5/30(목)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 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문의: 02-2270-2291, 010-2650-8014

지금동성당 성체 신심 교육

일시: 6/3(월)~7/8(월) 6주간

매주(월) 20시~22시

장소: 지금동 성당

문의: 031-567-3950

회비: 2만 원(교재비 포함)

제5회 가톨릭전례음악(시원)하계세미나

과목: 전례발성, 합창지휘, 그레고리오성가

및 반주법, 시편창법,시간전례

강사: 이호중 라파엘의 12명

일시및장소: 7/26(금)~7/27(토), 파주 참회

와 속죄의 성당 /회비: 15만 원(1박4식)

문의및접수: 010-8417-0701, 한국가톨릭

전례음악아카데미

http://cafe.daum.net/Musicasacra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일시: 6/14(금)~15(토) 오전9:30~오후5시

장소: 포천 모현의료센터 교육관

모집인원: 신청순 35명

회비: 무료

문의: 031-536-8998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02-726-0700)

전문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부부, 종합심

리검사/심리정서(불안,우울, 분노,공황장애)

독서와 마음누누기(집단상담) 저녁반

5/23~7/18 매주(목) 19시~21시

독서와 마음누누기(집단상담) 낮반

5/28~7/9 매주(화) 10시~13시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돌보는 마음여행-

이론과 실제과정

일시: 6/5~7/3 매주(수) 5주 19시~21:30

카드와 도표로 배우는 수치에니어그램 :

5/25(토) 10시~17시 (가족단위 문의)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재속 맨발 가르멜회원 모집

대상: 만 50세이하 건진성사 받은 자

첫모임: 7/8(월) /문의: 010-4946-3147

[예수회] 하늘사랑, 하늘마음 모임 모집

상실의 아픔과 슬픔 극복을 위한 10주간 프로그램 /대상: 배우자나 자녀를 사별하신 분 (신부님 동반) /장소: 천주교 예수회 관구 본부(서강대학교 인근)
전화: 02-3276-7705(상시접수, 전화문의)

사별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트랙 3기 모집 안내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 /일시: 5/25(토)~7/13(토), 매주 (토) 14시~17시(8회) /장소: 성 바오로 가정 호스피스센터(남양주시 불암산로99)
문의: 010-8985-9971, 031-575-9971

젊은이 모임 (스승예수 배움터)

주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일시: 6/1~7/20까지 매주(토) 15시~18시(8주)
대상: 40세이하(미혼남.여)
장소: 스승예수제자사우회 서울본원(미아리)
회비: 4만 원
문의: 010-9816-0072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영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만원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우: 04535
전화: 02-2274-1843,4 /cdcc.co.kr

타우영성심리상담소(010-3419-5604)

개인심리상담(불안,우울, 분노, 스트레스, 관계&성격) 부부및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신앙및영성상담, 수도자심리상담전문가, 상담심리박사 직접상담
장소: 일산 탄현역 5분거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19 후기(주간) 신입생모집

석사: 신학, 철학, 사회복지학, 가톨릭사회복지학 ○○명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환경(생태)),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명
일반및편입학2차전형: 5/20(월)~30(목)
전형일: 6/14(금) /문의: 02-705-8668
http://gsot.sogang.ac.kr

화요일아침예술학교 행정실 직원 채용 공고

채용기간: 2년 계약직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자격: 회계 및 예·결산 가능자, 법인 회계 3년 이상 /우대조건: 전산회계 자격증소지자
제출 서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제출 방법: 우편 접수 및 인터넷 접수
flowerday91@hanmail.net
채용공고 및 서류 접수: 5/8(수)~6/3(월)18시

에리코클리닉 봉사자(치위생사) 모집

'에리코 클리닉'은 2003년부터 영세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해 온 추천교구 사회사목국 소속단체입니다. 최근 진료확대를 위해 치과 치위생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의: 033-264-3547, 010-8684-3547

모현센터의원 간호사모집

조건: 3교대 근무(경기 포천시 소재)
문의: 031-536-8998

 **안내 · 기타 ▶▶**

제7회 이슬리스미 정기연주회

5/24(금) 영산아트홀 19:30 (지휘 이호중)
문의: 010-8998-5913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 공모전

김추기경님의 생명존중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생명나눔·생명존중 공모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5/1~9/30 (웹하드, 우편접수)
분야: 포스터, 글짓기, 슬로건, 웹툰, 동영상 등
공모 방법: obos.or.kr 참조
주관: 한국평협,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6/12 발칸반도 12일 375만 원
6/15 이스라엘 9일 360만 원
6/27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 원
7/5 바르셀로나, 파티마, 루르드 11일 395만 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전화상담.대면상담

전화상담전용: 02-990-9366, 월-금 10시~4시
대면상담예약: 02-990-9360, 주중.주말상담

가톨릭여행사 02-319-2533

9/23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9/23 터키 그리스 12일 395만 원
9/30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 원
10/1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15만 원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6/4, 9/17 이스라엘,요르단10일 289만 원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10일 335만 원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 10일 299만 원
6/23, 9/1 나가사키4일 949,000원

성공률만외방선교회 젊은이 선교체험(대만)

일정: 8/1(목)~8/6(화) 5박6일
대상: 만(19세~35세), 청년 남녀 15명
경비: 100만 원(항공료 포함)
신청: 02-953-0613 /마감: 6월 중순

제 18회 cpbc 영어캠프

영국 캠프: 옥스포드 브룩스캠프와 서유럽 투어
사이판 캠프: 가톨릭 국제 사립학교 영어캠프
필리핀 캠프: 1대1 맞춤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 www.cpbc.co.kr

제 54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7/21~8/10(3주)
대.일반: 6/30~8/11(6주)
공동: 세계 연수생들과 연수 + 다양한 경험
설명회: 5/25(토) 14시 명동성당내 가톨릭 회관 2층 강당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사녀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6/3 발칸반도 및 메추고리에 11일 370만 원
7/1 아일랜드, 스코트랜드. 영국 12일 480만 원
8/17 성모발현성지 4개국 13일 39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예수회	5/25(토) 15:30	예수회센터 이나시오카페	010-3324-0731 /vocation.jesuits.kr
	살레시오회	5/25(토)~26(일)	서울 신길동 돈보스코 청소년 센터	010-5159-3949
	예수고난회	6/1(토) 18시~6/2(일) 11시	서울 돈암동 수도원	010-6804-4904



병자성사(1) :

“주님께서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야고 5, 15)

왕태언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질병의 고통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인간에게 있어서는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그것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그것이 언제 닥칠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우리를 번뇌로 이끌기도 하고, 자신 안에 도피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하느님께 대한 실망과 반항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질병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할 수도 있고, 그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본질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질병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돌아오게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501항)

물론 다른 사람이 겪는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 대해 선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은 다른 사람이 대신 감당할 수 없는 외롭고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병자성사를 통해서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결코 그 고통 속에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치유와 위로의 은총이 그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해 줍니다.

그 위로의 은총에 내포되어있는 것은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한 참되고 진실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마태 14,14)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 겪는 질병

의 고통을 동정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극심한 고통과 죽음 또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고통과 두려움이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모두 고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병자들에게 필요한 의사이십니다. (...) 병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은,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각별한 관심을 오랜 세월 동안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심은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덜어 주고자 하는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근원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503항)

이처럼 병자성사는 인간의 고통에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성사입니다. 질병의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죽음을 앞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4,27) ☪